



조간 제7866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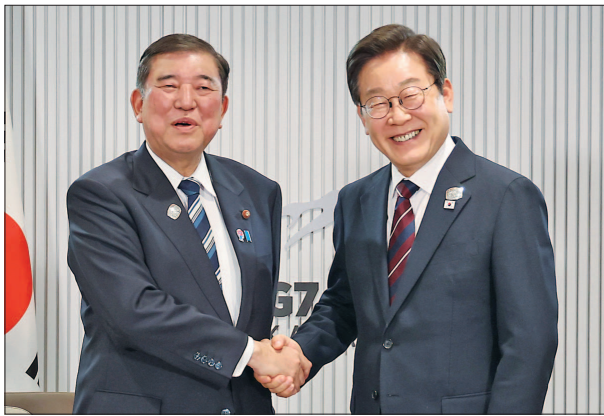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음력5월24일)

이재명 대통령, G7서 릴레이 회담...‘정상외교 복원·실용외교’ 빛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회담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시계 방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정상회담
▶관련기사 2면

‘광주 활력’ 복합쇼핑몰 건립사업 가속도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광주지역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의 복합화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공식 제출하고, ‘더현대 광주’의 건축 허가도 최종 승인되면서 복합쇼핑몰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18일 (주)광주신세계로부터 ‘광천터미널 복합개발을 위한 협상제안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노후한 광천터미널을 전면 정비하고, 백화점과 호텔, 문화시설, 주거, 업무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서구 광천동 49-1번지 일원 약 10만㎡ 부지에 총 연면적 약 81만㎡ 규모로 개발한다. 건축물은 지하 7층, 최고 지상 47층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여객터미널 기능은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에는 백화점 신관과 호텔, 문화·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며 다기능 복합도시 플랫폼이 마련된다.

신세계 측은 이르면 2026년 중 착공이

신세계, ‘광천터미널 복합화’... 시에 제안서 제출
북구, ‘더현대 광주’ 건축허가 최종 승인...내달 착공
공공성·경제성 등 갖춘 ‘복합도시 플랫폼’ 조성 기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화된 터미널 상부에는 2만 5437㎡(약 7800평) 규모의 광장과 녹지 공간이 조성돼 시민 중심의 열린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보행 친화적 설계와 스마트 기술 기반 터미널 운영시스템을 통해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운영 효율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주거정책심의, 감정평가 등 사전협상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지역 첫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도 이르면 다음 달 본격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북구는 이날 ‘더현대 광주’의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더현대 광주는 부지면적 3만2364㎡(늘

이 59.19㎡·길이 214m·폭 111m)에 연면적 27만3895㎡(지하 6층·지상 8층) 규모의 쇼핑·문화·여가 시설 등을 갖춘 대형 복합쇼핑몰로, 더현대 서울의 1.5배 크기다.

북구는 광주 최초의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 입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TF팀을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건축물과 기반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살폈다. 특히 더현대 광주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교통 문제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교통개선헌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용역 결과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광천역 일대는 하루 13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복합쇼핑몰과 인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교통량이 최대 29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북구는 더현대 광주 건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화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에 사후 교통·환경 대안 등 4가지의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더현대 광주’는 지난해 2월 광주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후 교통영향평가, 소방 성능 위주 설계 사전검토, 경관·건축 심의를 거쳤고 옛 전방·일신방직 건축물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허가는 현재 구조심의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7월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시장은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도시 이용 인구 증가,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광주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속·공정·투명의 원칙 아래 민관이 조화롭게 협력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공유일 대체 휴일로 20일자 신문 읽습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국정기획위, 새정부 정책 해설서 공개

광주 ‘AI’·전남 ‘에너지’ 비전 구체화

AI-X 융복합·미래 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육성

완도·해남 등 해상풍력·태양광 단지 집중 조성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전남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담긴 ‘새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가 공개되면서, 지역 발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날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위원들에게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전달했다.

기획위는 해설서를 통해 서남권 지역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제시했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확충을 통해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조성하고, 전남은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중심지로 한 인공지능 선도지역으로,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또 AI-X 융복합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K-푸드 혁명까지 이끌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전남 지역에는 구체적으로 신안·고흥·여수 등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완도, 해남 등지에는 전용 부두와 배후단지를 갖춘 해상풍력·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집약시킬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